

막 오른 경선 레이스… 민주 ‘흥행’·국힘 ‘빅텐트’ 최대 과제

6·3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등록 마감… 후보들 본격 선거전 돌입
민주, 이재명 독주 속 컨벤션 효과 고심·국힘, 범보수 빅텐트 시동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6·3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여야는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위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수 있는 ‘보수 빅텐트’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독주 속에서 본선 승리를 위한 ‘컨벤션 효과’를 고심하고 있다.

◇범보수 빅텐트 시동 걸리나-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총 11명의 뛰어 들었다.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향자 전 민주당 의원,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민숙 전 서영대 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등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한다. 이날 1차 경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인 설명회도 같은 날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18~20일 대선비전 발표회와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거친다.

22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 8명에서 2차 경선 진출자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진다. 이후 2차 컷오프 기간엔 후보자 간 ‘일대일 지명 토론회’와 합동 토론회를 열고, 29일엔 2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한다. 이때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인을 대상으로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특히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3지대 빅텐트론’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힘 대선 주자들 ‘한덕수 출마론’ 경계

국민의힘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해 거리를 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BS 라디오에서 “탄핵으로 인해 생긴 대선인대 탄핵당한 정권에서 총리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마 일선으로 ‘보수 빅텐트’를 제안했다.

반면, 대선 일정이 촉박해 빅텐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모두 ‘본인을 중심으로 한 결집’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리한 보수 대연합은 중도층 추가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 흥행 가능한가-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체제에 들어선다. 오는 19일부터 2주간 주말(19·20일, 26·27일)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호남권 경선은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민주당 경선은 흥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가 예상되면서 자칫 내부 경쟁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경선 효과는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 안팎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도 무리한 경쟁보다는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행보에 나서고 있고, 정책과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 간 ‘바리 폭로전’이 본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간 정책 경쟁 중심으로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 안팎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컨벤션효과를 위한 ‘아름다운 2위’의 의미가 있지만 낮은 지지율 속에서 ‘의미없는 3위’에 머물게 되면 향후 정치 행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최근 출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당내 경선 ‘숨고르기’

유시민·도올과 나눈 대담 공개
경선에서 ‘선의의 경쟁’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 내 경선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이 전 대표는 공개 일정없이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등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나눈 대담 내용을 공개했다.

초단기 대선 레이스에서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 쓰는 당 안팎의 대권 경쟁자들에 견줘 느린 템포의 움직임이다.

경선 관련 메시지도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의 절제된 톤으로 나오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

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전날 공개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는 김 전 의원의 복당이 당에 콘크리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가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사이다’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같은 행보와 메시지의 배경에는 이미 독주 체제를 굳힌 당내 경선 구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 주자들을 포용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선거 전략에 유리하다고 본 셈이다.

당내에서는 물론, 보수 진영의 주자들과 비교해도 여론 조사상 열적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공개 일정이나 언론 노출이 잦을수록 의도치 않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이는 선두 주자에게 더 치명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격자 입장인 김 지사와 김 전 의원은 이 예비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공개 일정을 많이 잡는 편이다. 이들은 이 예비후보와 달리 이날 직접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카메라 앞에 선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 관세 관련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고,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두 건과 함께 자영업자와의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김 전 의원은 워낙 당내 여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탓에 선두인 이 예비후보를 무작정 공격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형성돼야 상대에게 흡집을 내는 ‘네거티브 전략’도 먹힐 수 있지만 현재 경선은 이런 상황과 거리가 있다.

다만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이 예비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조금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혁신당 등 5개 정당 권력기관 개혁 공조기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채

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反)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의석 이 적은 군소정당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의제다.

원탁회의 참여 정당들은 또 “사회 대개혁 등 국가적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 방위청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